

사회 >> 3면
 잼버리 단원 떠난 뒤... 여야 "폭탄 던지기 급급?"

기획 >> 4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네? 방학 동안 달라진 서경대

현장르포 >> 5면
 폭염 속 노동자들의 노동 현황은?

제572호
 2023년 9월 8일(금)

“제주 국토 순례도 하고 쓰레기도 줍자!” 서경대 사회봉사단, 플로깅 사회봉사 성황리에 마무리...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 제주 국토 순례 행 플로깅 사회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위로 총학생회가 기획 및 주관한 이번 행사는 총 44명의 학우가 참여해 뜻을 모았다. 폭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참여를 신청한 모든 학우는 사전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외에도 모든 국토 순례 코스와 비상 연락망, 숙소 및 식당 연락처 등 행사에 관련된 정보는 사전 안내됐다.

코스는 5일간 총 50km로 제주 올레 15-B 코스 한림항에서 시작하여 17코스 제주항에서 종료됐다. 1일 차부터 3일 차까지는 일일 10km씩 이동했고 플로깅이 종료되는 4일 차에는 총 20km를 이동

했다. 안전사고 및 낙오를 대비하기 위해 행사 동안 총 5개의 임시조가 꾸려졌다. 진행을 맡은 조장은 조원들에게 물과 에너지 바, 간식 및 쓰레기봉투를 수시로 지급하며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힘썼다.

쓰레기가 가득 찬 봉투는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제주도 클린 하우스(쓰레기 처리장)에 분리 배출했다. 행사 1일 차에는 제주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다. 행사 2일 차에는 애월 바다 해양 정화를 실시했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와는 달리 해양 쓰레기는 부피가 다소 컸다. 페트병, 스티로폼, 플라스틱, 그물 등 종류 또한 다양했다. 바위틈 사이사

이 낀 해양 쓰레기와 대형 쓰레기들을 처리하며 2일 차가 마무리됐다. 행사 3,4일차 또한 전남과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워지는 제주 날씨에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제주 풍경을 보는 순간 피로는 저 멀리 달아났다. 이외에도 봉사하고 있는 학우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던 관광객, 감사한 마음을 전하던 제주도민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행사를 총괄한 총학생회장 김희범 학우는 (문근 17) "큰 부상자와 낙오자 없이 행사가 마무리되어 정말 기쁘다. 이번 제주도 플로깅 사회봉사가 학우 여러분에게 좋

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보다 생생한 그날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행사에 참여한 학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학우 인터뷰]
 - 박선민 (토목 21학번)
 - 한준성 (비주일디자인 23학번)

Q. 국토 순례 행사에 참여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A(박).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한 행사였지만 막상 제주도에 도착하니 솔직히 힘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된 만큼 조원들과 서로 의지하게 되어 좋은 인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오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A(한). 8월의 제주는 너무 힘들고 더웠지만 그만큼 더 깊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플로깅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 할 수 있어 더욱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Q. 국토 순례 행사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A(박). 첫날 도착해서 다 같이 비를 맞으며 걸었던 일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서 걱정했지만, 점차 걷다 보니 비는 더위를 씻어내려 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 우비를 쓰고 쓰레기를 주우며 걸었던 모습이 오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A(한). 2일 차에 진행한 해양 정화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바위 사이사이에 빠곡히 쌓인 쓰레기를 치우며 많은 생각이 들었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Q. 국토 순례 및 플로깅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A(박). 해양 정화에 직접 참여하며 길가의 쓰레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직접 환경에 아바지했다는 생각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인연이 한 가득 생긴 것 같습니다!

A(한). 정말 아름다웠던 제주도에서 좋은 기억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긍정적이고 건강한 에너지 얻어갈 수 있어서 감사한 4박 5일이었습니다.

이예은 기자
 (kosoy@naver.com)

천원의 아침밥 운영방식 변경...이전과 달라진 점은?

교내 천원의 아침밥 운영방식이 변경됐다. 사업을 운영하던 청운관 학생 식당이 지난 8월 말 영업 종료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간 청운관 학생 식당은 학우들 사이 '물질'과 '위생' 등 복합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높았다. 즉 타 건물 학생 식당에 비해 음식의 질이 떨어지던 것이다.

이에 '위로'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지속적인 개편 논의를 진행해왔는데, 그 결과 청운관 학생 식당이 영업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운영방식 또한 변경됐다. 기존에는 청운관 1층 학생 식당에서 식권을 발급받은 뒤 라면과 한식 등 취향에 따라 메뉴를 선택했지만 9/1일부터는 청운관 1층에 위치한 '이마트24'를 이용해 야한다. 별다른 식권 발급은 불필요하다. 도시락을 구입해 직접 계산하면 된다. 메뉴 또한 달라졌는데 3종류의 도시락이 바로 그것이다. 이용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총 3시간이다. 인원 또한 선착순 200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구매할 도시락은 청운관 학생 식당 내 공간과 편의점 내외 취식 공간에서만 취식해야 한다. 구매할 도시락은 2시간 이상 상온 보관 시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입 즉시 취식하는 것이 좋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니 주의 바란다.

위로 총학생회는 "새로운 업체 입장 시까지 청운관 학생 식당은 사용할 수 없다"며 "학우분들께서 원하는 형태의 식당이 입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로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sku_51st_wiro)을 참고 하길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naver.com)



천원의 아침밥 변경안내

2. 도시락 시간

구매한 도시락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 시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 즉시 취식하기를 권고드립니다.

▲ 출처 : 위로총학생회



졸업생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서경대학교, 지역 아동을 위한 종합예술 이중 언어교육 실시



성북구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뮤지컬 영어 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8월 7일(월)부터 8월 12일(토)까지 6일

간 진행된 캠프에는 선발된 관내 초등학생 1~3학년 30명이 참여했다.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와 성북구청이 기획한 이번 교육은 서경대학

교 원어민 교수진과 공연예술학부 교수진 및 관련 학과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했다. 서경대학교는 2012년부터 영어교육에 다중감각적 음악

교육을 도입해 종합예술교육을 운영해왔다.

뮤지컬 영어 캠프를 총괄하는 문화예술센터 부센터장 공연예술학부 뮤지컬 전공 최은정 교수는 "종합예술 활동이 학업성취도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은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며 "이름 이중언어 교육에 적용해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이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는 전문교육 현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예술교육사업의 책임을 맡은 문화예술센터 운영위원장 문화예술학과 심해민 교수는 "학력 신장을 넘어 문화예술교육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과 자치단체가 대응투자 하는 사업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문화예술센터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뮤지컬 작품 <Annie>의 장면을 주제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

된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이중언어 학습 방법이 아닌 뮤지컬 장르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띤다. 이를 통해 언어의 문화적 가치와 태도를 포괄하는 언어교육과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동시에 구현하며, 학습자들의 능동적 주체로의 역할 확장을 끌어냈다. 이러한 성과를 일궈낸 뮤지컬 영어 캠프에 주축으로 참여한 박소연 학우를 인터뷰했다.

[학우 인터뷰] - 박소연 (공연 21학번)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뮤지컬 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Q. 뮤지컬 영어 캠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대학 입학 전부터 아이들이 가

르치는 것이 저의 인생 목표에 있었고, 작년 여름방학에 좋은 기회로 뮤지컬 영어 캠프에 참여해 올해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뮤지컬 또한 너무 사랑하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Q. 뮤지컬 영어 캠프에 참여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30명의 아이와 처음 만난 날, 제가 연극 놀이를 약 30분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아직 이렇듯 외우지 못한 채였지만, 놀이를 즐길 때 물어오던 아이들의 순수함이 아직도 기억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즐거운 에너지를 받았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Q. 뮤지컬 영어 캠프를 준비하면서 특히 힘을 쏟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모든 아이를 공평하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뮤지컬 선생님은 수업에 같이 몸을 쓰며 움직이고, 이해하며 참여해야 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상처 받은 아이 없이 캠프를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Q. 뮤지컬 영어 캠프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A.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로 인해 뮤지컬의 꿈을 꾸는 아이들, 뮤지컬이 정말 즐겁고 좋은 직업이라는 걸 알고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영어 캠프 멘토를 하는 동안 매일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409@naver.com)

교수학습원, 학우들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사경고자 프로그램(Dream Explore)' 운영해

지난 7월, 서경대학교 교수학습원이 2023학년도 1학기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학우들의 학습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학사경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학과 멘토 교수와 상담 절차를 거친 후 교수학습원에서 1:1 면담을 실명한다. 면담 전 MLST-II 학습전략검사를 사전 실시하고, 이후 결과분석에 따른 학습 상담을 진행한다.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학습에 어려움

을 겪었는지와 개인의 감정과 같은 학습 외적 요인도 함께 이야기하며 상담자와 함께 과거 학교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 2학기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신의 강약점을 찾아내고, 학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은 상담자에게 학정 향상 전략을 전수받고, 훗날 학업에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받는다.

[교수학습원 김영식 선생님]

Q.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시행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A. 학사경고자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학업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됐을 시 성적향상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아래는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와 함께한 인터뷰다.

Q.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A.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고 아쉬웠던 부분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학업 생활을 즐겁게 시작하겠다는 기대와 동기부여를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Q. 교수학습원에서 2학기에 진행하는 또 다른 학습 프로그램이 있나요?

A. 지난 학기에 이어 튜터링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되며, '베스트

렉처', '프레젠테이션 토크', '영어 글쓰기' 총 3가지의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기 중간에 여러 학습 특강들과 MLST-II 학습전략검사 및 학습 컨설팅도 상시 운영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지우 수습기자 (milkyway_85@naver.com)

사 령

9월 8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 면 정기자 이종은 (아동 19)
- ▶ 면 수습기자 금예진 (아동 21)
- ▶ 면 수습기자 윤정현 (전자 22)
- ▶ 임 수습기자 송채영 (경영 23)
- ▶ 임 수습기자 이나연 (물류 23)
- ▶ 임 수습기자 손기현 (영화 22)

제 74대 졸업준비위원회

제 73회 후기 학위수여식 학사복 대여 신청

대상 | 2023년 8월 졸업대상자
기간 | 2023.08.17(목) - 08.19(토)
장소 | 청운관 1층

신청 방법 | 공지글의 구글폼 링크 및 QR 코드 참조

학사복 및 학사모 대여

- 대여 시간 (반납 시간 포함)
목요일 : 10시 ~ 16시 / 금, 토요일 : 12시 ~ 15시
- 대여비 : 7,000원 ("선입금, 토스", 현금 불가)
학사복 분당 및 미분당 25,000원
학사모 분당 3,000원
대여 총 요일 별당 시 제복비 5,000원 (착용 일회 사용)
- 사이즈 : 학사복 - 소, 중, 대 / 학사모 - Free
- 문의 연락처 : 위원장 박상현 010-8019-7016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2022학년도 제73회 후기 학위수여식 성황리에 마무리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8월,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졸업생을 위한 별도의 행사 및 이벤트는 진행되지 않았다. 학위증서는 8월 17일 목요일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며, 학과에서 개별 수령하도록 사전 안내했다. 비록 많은 인파가 몰리지는 않았지만, 서경대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 캠퍼스를 찾은 학우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스콘 스쿼어를 방문한 졸업

생들은 부모, 친구,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 여념 없었다. 이외에도 학사복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 꽃다발을 주고받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해인관 상단에 위치한 전광판에는 졸업생을 위한 문구가 띄어졌다. 제74대 졸업 준비위원회 또한 22년도 후기 학위수여자를 위한 학사복 대여 사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청

운관 1층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질서 정돈한 모습으로 차분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경에서의 지난 4년이 졸업생들의 앞길에 훌륭한 자양분으로 남길 바라며 학우들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예은 기자 (kasoyi@naver.com)

날	일	장
9월 1일		2학기 개강
9월 1일 ~ 9월 7일		2학기 수강신청 정정
9월 12일 ~ 9월 21일		수강철회
9월 18일		가을축제
9월 19일 ~ 9월 22일		청아체천
9월 28일 ~ 9월 30일		추석연휴

출처 : 졸업준비위원회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잠버리 단원 떠난 뒤... 여야 "폭탄 던지기 급급?"	'슈링크플레이션', 기업들이 살아남는 법	칼부림에 이어 살인 예고까지... 잇따른 '홍악범죄'에 시민 두려움 증폭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무너지는 교권	피프티피프티 사태, KPOP 시장에 닥친 '탐퍼링' 주의보	'김연경 저격' 배우 이다영 연이은 폭로 글 업로드..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잼버리 단원 떠난뒤... 여야 “폭탄 던지기 급급?”



▲ 출처: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가 거센 논란 속 조기 파행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다. 이례적인 폭염과 야영장 위치 선정 등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제2차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 지원위원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은 “감염병, 폭염 및 폭우 등에 대한 자연 재난 그리고 해충에 대비한 대책도 다양하게 마련해왔다”는 의견을 밝히며 행사 준비에 자신민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개영식에서부터 온열 환자가 다수 속출하며 붕괴된 의료체계로 인해 빈축을 샀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및 워신 보도 등으로 현장의 열악

한 상황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폭염과 준비 부실 등을 지적하며 조기 퇴장탈차를 받았다. 이에 싱가포르 대원들 또한 뒤이어 야영장을 떠났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잼버리 영지 내 여자 사위실에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침입했다는 성범죄 폭로가 이어지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은 가세했다. 기획적인 폭염과 위생, 보건, 성범죄 폭로 등에도 곳곳이 잼버리 강령 의사를 밝혔던 세계스카우트 연맹(이하 세계연맹)과 조직위원회, 이러한 상황 속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자

세계연맹은 결국 조기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잼버리 스카우트 전원 철수가 확정되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사실상 파행을 맞게 되며 2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잼버리 단원들이 모두 떠난 뒤 잼버리가 파행을 맞게 된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를 통해 주최 측인 조직위가 1천억원대의 예산 대부분을 야영장 조성보다 조직위 운영에 쓴 것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벽서 제작은 문구점이, 간식 공급은 사무기기 판매업체가, 새만금 야영장 상징물 제작은 속속히 사업업체에 맡긴 사실 등이 속속히 밝혀졌다. 이에 지난 8월 3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리를 하였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여러 논란 속 대회가 마무리된 지 18일 만이다. 하지만 파행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시민 인터뷰]
- 김민지 (가명/직장인/23세)

Q.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기 파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솔직히 말해 국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과 예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이란 결과를 낸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번 행사의 총책임자와 관련 관계자들의 잘못이 충분히 밝혀지고 진위 여부를 조사해서 응당하는 처벌과 합당한 행정적인 절차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잼버리 사건에 대한 여야 격돌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서로의 잘못을 따지고, 탓을 돌리려 보다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깐요. 다행히도 공방전 이 아닌 이번 일을 발판 삼아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행사 유치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맛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겠지요.

이예은 기자
(kasoy@naver.com)

‘슈링크플레이션’, 기업들이 살아남는 법

델몬트가 지난달부터 주스 제품의 과즙 함량을 35%까지 축소했다. 과즙 100%로 만들던 오렌지주스는 80%로, 80%였던 주스는 45%로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오렌지주스 원액 가격이 급등하자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적용한 것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줄어든다는 뜻의 ‘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n’이 합쳐진 표현이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가격 인상이 아닌 제품의 양과 품질을 낮추어 가격 인상과 다를 바 없는 판매전략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용량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가격 상승에서는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 출처: 뉴시스

해태제과는 편의점에 입고되는 ‘고향만두’ 중량을 최대 16% 줄였으며, 동원에프앤비(F&B)도 ‘동원 참치 라이트스탠다드’ 100g 제품을 90g으로 변경했다. 하리보는 기존 100g이던 젤리를 80g으로 20% 줄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오리온은 ‘햇브레이크’를 기존 50g에서 45g으로, 서울우유는 ‘비요프’를 기존 143g에서 138g으로 줄였다. 슈링크플레이션이 처음 나타난 것은 외환위기로 이후 이른바 ‘질소과자’가 대표 사례이다. 일부 제조업체가 과자의 양을 줄이고 포장지에 넣는 질소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눈속임했던 방식이다. 2014년 9월엔 대학생 3명이 아이에 대한 시위로 과자봉지를 엮은 붓대를 만들어 한강을 건너는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비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경제가 위태로울 시에는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이 다.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변동 없는 가격을 보며

부담을 뒤고, 기업들은 품질은 낮추지만 아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은 적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큰 걱정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가 안정된 후에도 이를 유지하려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전략을 안 좋게 보는 사상이 많아지는 것이다.

[시민 인터뷰]
- 박재민(가명/20세, 박지혜(가명/27세)

Q.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박재민). ‘질소과자’에 대해선 알고 있었지만 그게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과자를 뜯어보니 양이 절반 이하인 것을 보고 어이없던 적이 있습니다. 과자의 양이 적으니 가격도 저렴하면 맘 편히 사겠지만 양도 적고 가격도 비싸니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소비

자를 바보로 생각하는 기업이 만든 슬수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면 아이에 속지 않고 똑똑한 소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박지혜). 최근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슈링크플레이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래 두고 먹을 가격의 만큼 구매했거나 음식물이 급할 땐 떨어졌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단위당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합니다. 그래야 덜 억울하니까요. 먹고 살기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악화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세일을 진행하거나 1+1 행사를 진행할 때면 살 계획이 없던 제품도 무조건 구매합니다. 언제 양을 줄일지 모르니까요.

한재민 수습기자
(hanjaemin@skuniv.ac.kr)

칼부림에 이어 살인예고까지... 잇따른 ‘흉악범죄’에 시민 두려움 증폭

지난 7월 21일 오후, 조선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대낮에 무차별적인 ‘칼부림’이 벌어지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신림역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않은 약 2주 후인 지난달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서현역 AK프라자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서현역 앞에서 인도로 돌진한 최원종의 차량에 4명이 치였다. 범행 당시 최원종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9명이 흉기에 찔려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8월 초, 최원종의 차량에 치였던 60대 여성이 숨진데 이어 차량에 치였던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오던 중 8월 말 끝내 숨졌다. 신림역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올라온 살인예고 글은 서현역 사건을 기점으로 폭증했다. 지하철역은 물론, 주요 공원에 대한 테러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상대로 한 살인예고 글도 등장해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 제(의경) 제도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속되는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

스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물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부터 25일까지 특별치안활동 기간 동안 흉기난동을 포함한 시민 안전 위협 사건은 총 315건으로 집계됐다. 살인 미수 25건과 흉기 폭력행위 163건 등이다. 이중 구속 54명을 포함한 86명에 대해 신병 처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228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22명을 구속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937명에 대해서는 입원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출처: 매일경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껏 예민해진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실제적인 두려움이 성령 다가온 것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길에 타인과 부딪히는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린다. 늦은 시간에 헤어질 때 유독 힘주어 말하던 “조심히 가”라는 인사말이 무색해졌다. 밤낮을 가리지 않



▲ 출처: 뉴스1

고 일어나는 흉악범죄에 과연 대처할 수는 있는 건지 수많은 물음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 인터뷰]
- 김현주 (가명/51세)

Q. 연이은 흉기 난동 범죄 소식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떤 상상이었나요?
A.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안타까웠으며 유족들의 슬픔이 제 앞인 양 느껴졌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는 데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불안해서 괜히 주위를 더 살피게 됩니다.
Q. 언제 가장 불안을 느끼시나요?

A. 어디서든지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주위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도 의식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귀가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도 동료 직원들과 주위를 살피며 다니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Q. 반복되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한숨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연이은 살인예고에 무서워서 어딜 다니기가 무섭고요, 두려움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 사후 처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지른 범죄에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무너지는 교권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 2022년 9월 자매 증세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매 증세가 있는 주호민의 아들 A군은 수업을 들던 중 같은 학급의 여학생 앞에서 버질을 내리려만 교사에 의해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이후 A군은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불안증세가 심해졌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A군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B씨가 “여학생 앞에서 버질을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등의 발언을 한 것을 알아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사 B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 출처: 연합뉴스

사건이 알려진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어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며 “교사 처벌 목적이 아닌 교체의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취록 전문을 듣고 분석한 뒤 의견서를 제출한 류재연 특수교육과 교수는 “해당 발언이 다른 시간,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표현들을 짚기 위한 것이며, 아동학대로 볼 만한 발언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주호민 부부가 교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앞뒤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질타를 받고 있다. 사건의 여파가 거세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재판 중인 특수교사 B씨를 8월 1일자로 복직시켰다. 최근 발생한 서초교 교사 사망 사

건에 더불어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건이 맞물리면서, 추락한 교권의 회복 필요성과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과 간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을 갖추어야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는 교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어 업무 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간섭’으로 변지면 안 된다. 역사사자의 마음으로,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A. 제도 한계 교사를 꿈꿨기에 해당 사건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사에게 화가 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까지 진행한 것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분의 직위해제가 풀려 다행이며, 학부모의 발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Q. 교권 침해가 이슈되는 요즘, 교권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외 시간에 과도한 연락을 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문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문제 행동 내용을 기록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 인터뷰]
- 서정인 (가명/23세)

Q.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유지우 수습기자
(milkyway_85@naver.com)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네? 방학 동안 달라진 서경대

또다시 새 학기가 시작됐다. 방학 이후로 다시 학교에 와서 보니 어딘지 모르게 생경한 느낌이 든다. 새로운 마음으로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을 우리에게 달라진 서경대가 반갑게 맞이한다. 매일같이 오던 학교를 떠난 지 약 두 달, 그동안 무

엇이 바뀌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방학 전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학교에 발걸음이 뜬해졌을 때 학교는 쉬지 않고,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며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학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출입이 제한되기도

하고 숨을 쉬어도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안 면지가 일었다. 땀겨름끼는 땀소리와 소름이 끼치는 소음에도 멈추지 않고 공사가 계속됐다. 2학기가 되니 광음은 물론, 공사 현장의 쓰레기와 폐기물의 흔적은 온데간데없고 깨끗하고 평

온한 학교가 반기고 있었다. 학기 중에 시작한 공사부터 방학 중에 진행된 공사와 개강 후 완공된 공사까지 그중에서도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네 곳을 추려봤다. 아직도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다면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바뀐 은주관 계단

전

후



강의실 외에도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가 있는 은주관은 특히나 건물 관리가 중요해 보수 공사에 대한 수요 또한 많았다. 이번 방학 동안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을 위해 은주관 1층부터 6층 중앙계단, 은주관 2층 5층부터 7층 양측계단 철거 및 계단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예정이었던 보수 공사는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운동장에서 이어지는 은주관 출입구로 들어가면 '계단보수중 낙상주의', '계단보수중 출입금지'가 적힌 종이가 벽에 붙어 있었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가 경고 문구까지 있으니 당분간 은주관 계단 이용 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돌아온 청운관 매점 이마트 24

전

후



달라진 서경대 시설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청운관 매점이 이마트24로 탈바꿈한 것이다. 기존 매점은 가격표가 없고 원가보다 비쌌으며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위생 관리가 불청결하다는 반응이 있었으나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다.

매점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어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다. 매점 앞에 있던 카페가 사라진 자리에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됐다. 4대의 셀프 계산대가 있어 적은 물량은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 6대의 전자레인지와 한 번에 두 개의 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라면 기계 3대가 있어 화전이 빠르고 편리하다.

한편 청운관 학생 식당과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이마트24에서 1,000원의 아침밥을 시행한다. 오전 7시 30분부터 편의점 도시락을 200명 한정으로 1,000원에 판매한다.



자동문으로 바뀐 청운관 1층 출입문

전

후



학생 자치 공간이 모여 있는 청운관 이마트24와 화장실 외에도 새롭게 탈바꿈한 공간이 있다. 바로 청운관 1층 출입문이다. 청운관은 L층과 1층 두 곳에 출입문이 있는데, 이번에 공사 된 출입문은 학우들의 주로 이용하는 1층이다. 그간 수동으로 열어아는 출입문이었기 때문에 짐이 많거나, 음료 등을 들고 있을 경우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새롭게 탈바꿈한 청운관 화장실

전

후



청운관은 과방, 동아리방, 총학생회실, 자치기구실 등 학생 자치 공간이 모여있는 건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에 보다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여름 청운관 전 층 화장실 공사가 시작됐다. 기간은 5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약 세 달간 진행됐다. 공사 기간에는 중앙 엘리베이터 사용이 통제됐고, 로비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전 층 화장실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정수기 또한 단수됐다. 현재 청운관 화장실은 우드 톤의 밝은 분위기로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서 둘러본 네 곳 말고도 대입관 앞 울타리와 해인관 1층 벽면에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바닥 수리 공사와 전기시설물 긴급 전기공사를 하는 등 학교 곳곳에서 공사가 이뤄졌다. 대부분의 공사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줄어든 방학 중에 진행됐다.

하지만 청운관 화장실의 경우, 시험 기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기밀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과방을 찾거나, 학생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와 잠깐의 휴식과 스트레칭 해소를 위해 동아리방을 드나들 때 역시 청운관에 오랫동안 머물기 힘들었다. 엘리베이터 이용에도 제한이 생기면서 이전보다 이동시간이 늘어났으며 한창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릴 때는 단수로 인해 정수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 목이 메달랐

다. 더운 날씨에 계단을 오르내리려하느라, 화장실도 멀리 돌아가느라 고생도 참 많았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짜증도 많이 났을 것이다. 그토록 원하던 화장실 공사가 완공됐으니 묵은 체증이 쏙 내려간 기분이 들지는 않는가? 더 나은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개강 후 현재 청운관은 쾌적하게 바뀐 환경에 학생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길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 덕분에 더 나은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으리라. 우리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해 보인다.

'폭폭 찌는 듯한 더위...' 폭염 속 노동자들의 노동 현황은?

올여름,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밖에 갈 때 더워진다는 무더위가 지속됐다.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연이은 폭염에 온열질환자 또한 급증했다. 이러한 기후위기의 영향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다름 아닌 야외 노동현장이다. 매년 여름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소식들이 들려온다. 올해 알려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

면 2016년 이후 7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192명(사망 29명)으로 7~8월에 집중 발생(182명)이었으며,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20명)했다고 한다. [출처: 경기북부시민신문] 우리는 맹렬 더위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방학에 학교에서 청운관 건물을 수리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보았는데, 과연 이 더위

에서 이분들의 휴식권과 식사가 제대로 보장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었다. 고용부가 추진한 '온열질환 예방지침'에 의하면 폭염 특보 발령 시 그늘진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2~5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탁상공론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물류센터, 자영업자와 같은 실내 노동자를 또한 마

찬가지다. 안전보건규칙은 옥외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던 휴게 권리를 실내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했지만, 냉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폭염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 상황 속, 고내/외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어떠한지, 서경대 신문사가 취재해 보았다.

여름이 맞아간 생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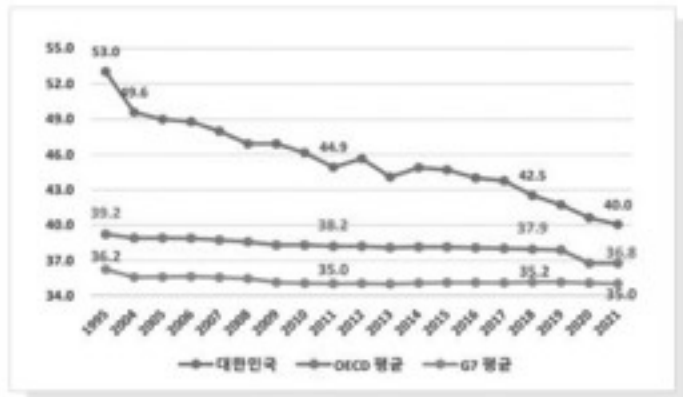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온열 감시가 시작된 5월 20일부터 8월 15일 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2,244명이고 그중 사망 환자는 29명이다. 누적 온열질환자 중 31.2%(701명)는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시체계 운영을 처음 시작한 2011년 이래로 올해 두 번째로 온열질환 환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누적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서울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휴게 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쿠팡 노동자들의 투쟁 결의대회가 있었다. 부산에선 8월에만 4명이 노동 중 사망했고 그중 1명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다. 지역노동단체로 구성된 부산노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 작업에 대한 현재 기준과 권고 수준이 한계가 있다며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현장의 전면 작업 중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 책임

자 처벌,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하남의 코스트코에서는 지난 6월 야외주차장 쇼펜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 김동호(29세) 씨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 탈수로 사망했다. 코스트코 하남점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가 사망한 주차장은 환풍기와 냉풍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바깥보다 기온이 높았다. 3시간 연속으로 노동을 한 뒤에야 15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데, 정수기가 있는 휴게실까지는 작업장으로부터 10분을 걸어가야 했다. 김동호 씨는 사망 당일 정오에 출근해 1시간 연장 근무를 하여 오후 10시까지 4만 3,000보, 즉 26km를 쇼펜카트를 끌며 일했다. 이후 코스트코 측은 온열질환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고, 코스트코 대표와 간부들이 정례식장에서 김동호 씨가 원래 지병이 있던 걸 숨기고 입사했다며 막말을 논란이 됐다. 태양 기림막이 없이 온전히 햇빛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달 노

동자들은 열이 올라도 입을 멈출 수 없어 해열제를 먹으며 일한다. 배달 플랫폼 회사가 권장하는 오토바이 안전 장구류를 모두 착용하면 땀뻘뻘이 돼 탈수 증상이 찾아온다. 열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오토바이 헬멧의 내부 온도는 40도가 넘어간다. [출처: 헬로티비 뉴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아동 노동자 실태를 운영하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 동안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쉴 틈이 없는 것을 꺼린다.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게 여름은 특히 위험하다. 고령 노동자들은 신체가 고온에 노출됐을 시뮬을 내고 피부 혈관을 확장해 체온을 내려가게 하는 냉각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체중 대비 체내수분 함유량이 적어져 땀을 조금만 흘려도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갈증은 늦게 느끼기 때문에 본인의 몸 상태를 자각하지 못해 유독 사망자가 많다. 올해도 경북 김천, 충남, 영광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발달하던 고령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의식 불명이 되거나 사망했다.

노동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한 우리나라 노동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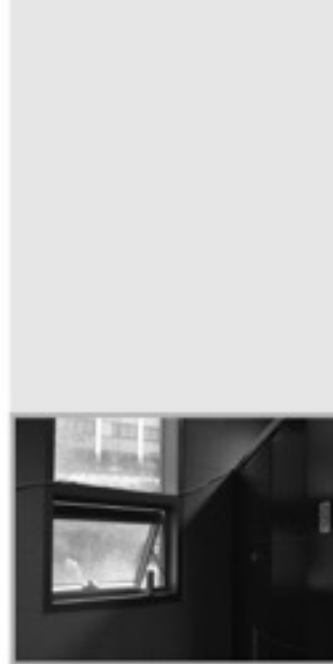


지난 3월,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청년층의 반발로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69시간제 도입 결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는 한국의 소식을 보도했다. 이어, 한국은 현행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에 초과근로는 12시간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대부분이 초과근로 시간을 넘어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노동 시스템을 비판했다.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OECD 주요 국가들의 노동시간 추이를 연구 결과를 통해 알아보았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길다.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타 국가들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노동생산성이 높기로 유명한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매출의 34.4%를 감당하고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의 매출은

한국 중소기업 매출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이처럼 독일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우수한 근무환경이다. 독일은 기업과 학교 두 장소에서 각각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독일식 이원 직업교육인 '하우스 빌딩' 시스템으로 다양한 직업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 이처럼 활성화된 기술 인력 양성제도와 소속감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독일 특유의 가족주의가 합쳐져 세계에서 꼽히는 기술력과 노동생산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독일은 휴게시간 또한 철저히 보장된다. 근로시간이 6시간 초과 9시간 미만일 때 휴게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갖고,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한 45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미리 정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받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이에 동의 표시를 한 근로자의 목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근로시간 준수 여부에 따른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프랑스 또한 노동법 개정에 성공한 이후 주 35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 선진국이다. 프랑스의 노동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연결 차단권'인데, 업무 외 시간에 디지털 기기를 통한 업무를 요구할 때 별도의 협상을 수행해야 한다는 법안이며, 노동자들의 사생활과 휴식, 휴가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노동 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두 나라 모두 노동자를 위한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유럽 국가와 우리나라는 근로 기준에 대한 정서와 가치관 차이가 매우 커서 법안을 뒤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들다.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야외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해 주는 사회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과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서경대학교 청소 노동자 인터뷰



Q. 하루 노동시간은 총 몇시간 인가요?
A. 쉬는 시간 포함 총 8시간입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하지만 대개 정해진 시간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Q. 한 건물당 몇 명의 인원이 청소를 담당하나요?
A. 복약관의 경우 3명의 노동자가 담당해 청소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유담관이나, 해안관 같은 대형 건물의 경우 최대 5명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인당 약 세 개의 층 정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폭염경보 발효시 평소와 다른 조치 사항이나 변동 사항이 있나요?
A.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폭염경보 유무 상관없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Q. 폭염경보 발효시 업무와 휴식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저희는 따로 쉬는 시간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업무 강도 및 상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편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 8월의 경우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서 그나마 편찮긴 합니다.

Q. 업무 환경 및 휴게 공간에 냉방이 설치된 걸 돼 있는 편인가요?
A. 공식적인 휴게 공간은 유담관이 있습니다. 10~15분 정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오고 가는 시간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틀어놓지 않습니다. 냉난방기는 어느 정도 잘 설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청소노동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때때로 간식이나 음료를 지급해주시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울려 뜰에 핸드폰 충전기를 인당 하나씩 지급해주시기도 했습니다.

Q. 올여름 노동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A. 막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더위'입니다. 이례적인 더위로 인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육체적인 노동이다 보니 그 더위가 두 배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인터뷰

Q. 하루 노동시간은 총 몇시간 인가요?
A. 공식적인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재료 준비와 마감 때문에 1~2시간 정도 더 초과 근무하는 편입니다.

Q. 폭염경보 발효시 평소와 다른 조치 사항이나 변동 사항이 있나요?
A.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가게 문을 닫거나, 잠시 임시휴할 경우 그동안에 손님을 못 받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참으면서 일해야 합니다. 웬지 이럴 때는 서러워지기도 합니다.

Q. 폭염경보 발효시 업무와 휴식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식당이나 보니 2시 이후에는 손님이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3~4시 사이에 잠시 휴식합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됐다고 해서 일찍 쉬고 이라는 건 없습니다. 매장의 상황을 보고 유동적으로 휴식하는 편입니다.

Q. 업무 환경 및 휴게 공간에 냉방이 설치된 걸 돼 있는 편인가요?

A. 매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에는 선풍기도 있고요. 하지만 저의 업무 공간은 주방이다 보니 아무리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어도 덥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일하다 보니 에어컨 바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선풍기가 있기는 한데, 주방의 열기를 식히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Q. 올여름 노동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A. 계속해서 불을 쓰기도 하고 냉방고, 밥솥 등의 열기로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던 8월 초에는 주방 온도가 40도를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매장이 바쁘거나 정신없을 때는 더운 것도 모르고 일하지만, 한가해질 때에는 온몸의 진이다 빠질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이나 한가할 때는 수시로 물이나 이온 음료 등을 먹으면서 수분을 충전했습니다.

풍기조차 없는 폭염 속 야외 노동을 해야 한다. 자신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온열질환 사망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야외노동자들의 노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산업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에 따르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노동자 대부분은 정해진 기한 내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일을 강행한다.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 노동 후에는 휴식을 취해야 하며 온열질환이 느껴지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후에도 온열질환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사람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돈보다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노동자들은 몸을 지키며 일을 하고, 관리자는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마련과 휴식 시간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나라의 정책 또한 권고가 아닌 법으로 폭염 속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 환경은 모두 달라서,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면 누군가는 선



주간칼럼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자

주관 방미영 교수

여름방학을 마치고 다시 가을학기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방학동안 서로의 안부나 소식이 궁금해도 방학이 끝나야 소식을 알 수 있었지만, 요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뉴미디어를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금방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콘텐츠는 알고리즘에 의해 소통의 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콘텐츠를 어떻게 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막연해 질 때가 많다. 이때 퍼스널 브랜드(personal brand)로 소통되는 콘텐츠는 유익한 길라잡이가 된다.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드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퍼스널 브랜드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 가치, 역량, 경험 등을 강조하

고 공유하여 자신을 브랜드링 하는 프로세스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전문성, 열정, 창의성 등을 부각시켜 타인과 소통하고 네트워킹하는 과정이다. 얼마전 안산사에서 만난 여성은 온라인에서 차별화된 네트워킹을 위해 퍼스널 브랜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뿐만 아니라 일만하고 있는 콘텐츠는 알고리즘에 의해 소통의 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콘텐츠를 어떻게 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막연해 질 때가 많다. 이때 퍼스널 브랜드(personal brand)로 소통되는 콘텐츠는 유익한 길라잡이가 된다.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드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퍼스널 브랜드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 가치, 역량, 경험 등을 강조하

는 실제 적용이 더 중요하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스킬은 첫째,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는 제작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블로그,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 개인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실시간 유행 사회 강사에게 99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업을 마치고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무척 후회했다고 토로하였다. 뉴미디어 시대에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마 강의가 이론적인 개념만을 강조한 모양이다. 따라서 퍼스널 브랜드는 이론보

다 실제 적용이 더 중요하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스킬은 첫째,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는 제작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블로그,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 개인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실시간 유행 사회 강사에게 99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업을 마치고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무척 후회했다고 토로하였다. 뉴미디어 시대에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마 강의가 이론적인 개념만을 강조한 모양이다. 따라서 퍼스널 브랜드는 이론보

다 실제 적용이 더 중요하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스킬은 첫째,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뉴미디어 시대는 제작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블로그,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 개인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실시간 유행 사회 강사에게 99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업을 마치고 퍼스널 브랜드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무척 후회했다고 토로하였다. 뉴미디어 시대에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마 강의가 이론적인 개념만을 강조한 모양이다. 따라서 퍼스널 브랜드는 이론보

[기자의 눈]

이름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록조차도 없는 '유령 아동'

세상 밖으로 나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있다. 한창 사랑받아도 모자랄 아이들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 이른바 '유령 아동'이다. 유령 아동이란 의료기관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말한다. 이들은 나이가 되더라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없고, 학대를 받아도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을 수도 없다.

일명 '유령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바로 '수원 냉장고 영아 사산 사건' 이후다. 이는 경기 수원에서 낳은 지 겨

우만 하루가 지난 영아 2명을 친모가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그제야 세상에 존재가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산 이후 출생 미신고 영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출처: 일요신문] 지난 7월 유령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2123명 중 총 249명이 사망한 것

으로 밝혀졌다. 생존이 확인된 아이는 절반에 불과한 1025명(48.3%) 뿐이다. 확인된 사망 아동만 249명(11.7%)에 이르는 가운데 아직 생사나 학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814명(38.2%)의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온다. [출처: 동아일보]

안타깝게도 유령 아동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심지어 불법 입양과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태어난 지 6일 된 신생아를 99만원에 산 지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되팔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다시 한번 경악을 금

치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아기를 낳은 20대 미혼모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9만원을 지급한 뒤 아기를 건네받아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 B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접근한 A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한 뒤 병원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기가 어떻게 '사고파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본지가 치밀어 오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

생 신고는 오직 부모만이 할 수 있다. 설사 미신고하더라도 행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과태료는 고작 5만원이다. 전문가들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팍팍한 세상에서 시선 하나, 관심 받지 못한 아이들이 부디 차갑고 모질었던 기억은 잊고 따뜻한 애정을 듬뿍 받고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서는 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아다니길 바란다.

송민경 기자
(illdown012@skuniv.ac.kr)

[수습의 눈]

엄마라는 이름이 두려워지는 이유

지난 8월 서이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맘카페에 한 글이 올라왔다. 바로 해당 교사에게 갑질을 한 학생의 가족 중 3선 국회의원이 있다는 정보였다. 글은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당사자로 지목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해당 글 작성자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으나 고소 취하는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온 9세 아이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아이의 부모는 일부 허위 사실을 포

함하여 맘카페에 글을 올렸고, 민원 과 소문에 고통받던 소아청소년과는 결국 폐과했다. 대학병원 전공의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에 불을 붙인 셈이다. 유명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또한 비슷한 논란을 겪었다.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불꽃 나타나 자신의 몸에 손을 대려하자 놀란 표정을 지으며 피한 영상이 퍼졌다. 그제 낯선 아이 갑자기 접근하자 본능적으로 반응했을 뿐인데 말이다. 맘카페에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졌다.

'맘충'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맘충'이라는 표현은 일부 무개념 엄마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엄마를 칭하는 '맘'에 혐오의 의미인 벌레 '충'을 합친 표현이다. 그러나 모든 맘카페의 엄마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맘충의 기준이 모호한 탓과 몇 명의 단독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일부 엄마들은 아이와 함께 밖을 나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며 심지어는 이유 없이 비난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맘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은 직접 보고 겪은 바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상승한다. 이에 따

라 간혹 허위 사실이 덧붙여져 있더라도 밝혀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이를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 그저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날 뿐이다. 자영업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손님들의 갑질에도 후에 작성될 글이 두려워 그저 가만히 들어줄 수밖에 없다.

맘카페는 계속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언제부터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으며 어쩌다 기피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걸까.

정확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맘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은 한 아이의 엄마가 쓴 글인 만큼 설마 거짓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의심을 거듭해 된

다는 점이 큰 원인이다. 그렇게 설 불리 맘카페의 글을 믿었다가 전부 엉터리였음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맘 카페를 잊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잘못이 없는 사람들도 전부 엄마라는 이유로 비난한다. 대중들은 함부로 비난부터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모든 글을 검증 후에 믿어야 하며, 맘카페의 파급력을 조절할 방失措 또한 필요하다. 소문에 살아 불어 기정사실로 되기 전에 막아줄 관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채린 수습기자
(hanchaerin@skuniv.ac.kr)

[수습의 눈]

청년의 눈으로 본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 초청으로 진행되는 '서울권대학원연합회 제주 캠퍼'에 참여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과도 같은 장소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남단에 위치한 섬, 제주도다.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광활한 자연경관과 친환경적 이미지, 그리고 무엇이든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까지, 이 모든 게 갖춰진 환상의 섬 제주는 상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 초청으로 진행된 '서울권대학원연합회 제주 캠퍼'에 참여했다. 제주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라이드플릭스', '동북·북중동력발전단지', '제주청년센터', '제주더큰내일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까지 총 다섯 곳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상상 속 제주를 현실로 만나 볼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장소는 '제주청년센터'다. 초중고 정규 교육 이수 후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면 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된다. 제주 청년 보장은 이러한 제주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 이행기의 도전 과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문제와 집값 상승 등의 문제에 대응하며, 개인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다. 또한, 제주청년센터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주청년센터 정지수 센터장은 "제주 청년의 일과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청년센터의 고민"이라 말했다. 센터는 청년들을 세분화하여 지원하며, 전자책과 청년 통행 정보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전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제주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로봇정 시대에는 죽어가는 지역 중심이 기회와 땅이 될 수 있어 새로운 인구 흐름의 핵심 동력인 청년들이 제주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제주의 자연자원과 문화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교육, 창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도움이 손길을 내민다. "2년 안에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찾아가게 한

다. 이게 제가 잡은 더큰내일센터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 황석연 센터장의 포부다. 그는 불확실한 사회에서 안락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미래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었다며,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재들이 제주에 있다고 확신했다.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청년 인재들을 만드는 것이 센터의 목표다. 제주의 특성을 살려 청년들은 자연과 문화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하며, 센터는 지역사회와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경험과 실전 교육을 제공해 청년 경력 단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주도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 생산을 추구하는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 중 하나다. 2030년까지 20% 신재생 에너지 달성이 목표다. 제주는 이미 20% 신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 21%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다양한 기상 환경이 나타나 자율주행 1호 시험 지구로 선정됐다. 또한 제주를 찾는 많은 이들이 교통수단 없이 오기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더욱 빛을 발했다. 필자가 방문한 '라이드플릭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며 민간 자율주행 서비스와 구역별 택시형 서비스 개시, 세종 시내 순환 서비스, 자율주행 물류 캐리어 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하반기에는 제주대학교와 연계하여 자율주행 여객 물류 통합 서비스를 11월에 출시 예정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의 이름 다음과 가치를 보존하며 미래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열중한다. 5개의 풍력발전 단지 와 4개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운영 해, 연간 10만 3천 MWh의 전력을 생산해 3만 5천여 가구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한다. 발전을 위해 육·해상 풍력,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연구를 통해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환경 보호 및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탄소 없는 섬이 될 제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간 풍력발전 지식 공유도 이루어져 매년 두 번의 기술 교류 행사를 통해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는 제주의 전기차 배터 리 재활용 및 활용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 센터는 제주의 친환경 전 기차 국내 운영 목표와 관련해 전기 차 배터리 활용 사업을 수행, 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연구와 개발을 한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평가, 재활용, 재사용에 관한 연구와 시험을 하며, 폐과 모듈의 분리 및 검사, 성능 평가, 안전성 시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공 활용 모델로 활용되고 있지만 민간 상용화 모델로의 확대를 기대한다.

청년과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제주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상상에서만 그리던 모습이 제주에 도래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409@naver.com)

만/파/식/적

615번의 도전

식사 시간, 지루한 등하교 시간, 휴식을 취하는 시간. 언제 어디서나 필자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MBC의 간판 예능 '무한도전'이다. 무한도전은 2018년 3월부터 종영했다. 그러나 5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필자 역시 계속해서 반복 시청한 탓에 동영상 시청 기록엔 온통 무한도전으로 가득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필자의 가치관 때문일까? 아니면 필자의 생각 때문일까? 수 없이 들려온 탓에 대사로, 내용 전개도 모두 알고 있지만 볼 때마다 늘 새롭고 재미있다.

그중 가장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멤버들의 도전정신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도전 성공 여부를 중요 관점으로 봤다. 만약 한 멤버가 도전에 실패했을 경우 "애이 겨우 이거밖에 안 돼?" 하며 실망했다. 즉 결과적인 측면을 더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곱 멤버의 모습이 눈에 띈다.

버닝시, 레슬링, 볼스케이, 에어로빅 등 수많은 장기 프로젝트와 크고 작은 에피소드까지, 일곱 멤버의 좌우를 도전기는 결과 중심 사회에서 때로는 과정이 더 중요한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등을 말한다.

이러한 점들이 지금까지도 무한도전이 사랑받는 이유이자, 타 예능과의 차별점일 것이다.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예능"이라 말한다. 필자도 이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필자가 가장 최근에 시청한 편은 조정 특집이다. 규정된 보트를 타고 8명이 힘을 합쳐 결승선으로 향하는 조정은 팀워크, 체력, 정신력 등 많은 것이 요구되는 스포츠다. 멤버들은 바쁜 스케줄을 쪼개며 연습했다. 일곱명의 멤버 모두 거물급의 연예인임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냈다. 여름철 장마와 부상 그리고 시간 부족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나, 일곱 멤버는 완주에 성공했다. 낙오자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승선을 향해 노를 저어, 등수는 상관없었다. 그들에게 최선은 다했다는 점이 중요했다.

필자는 조정 특집을 비롯한 '615'의 도전을 보며 "과연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해본 적이 있었는가?" 자신을 돌아봤다. 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멤버들의 모습이 존경스러웠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볼 때마다 늘 새로운 교훈을 주는 프로그램 무한도전.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나의 학창 시절을 함께 해준 프로그램이기에 더욱 애착이간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음을 아쉽고 또 아쉬운 마음이지만 재미 이상의 감정을 선물해준 일곱 멤버와 제작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곱 멤버가 다시금 함께 도전할 그날을 고대하며 글을 마친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사설

4차 산업 강조하면서... '챗 GPT는 금지?'

챗 GPT와 구글의 Bard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은 세상을 뒤흔키게 한다. 왜일까?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게 때문이다. 의료, 산업, 교육, 예술 등 그 형태와 규모도 다양하다.

인공지능의 보급 속도 또한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애플의 Siri, 삼성의 빅스비가 그 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편리하고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챗 GPT, Bard와 같은 거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이를 이용해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은 작업물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 수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인간과 인공지능의 올바른 상호작용법을 알아내려는 움직임 또한 바빠졌다. 교육계의 사례를 살펴보자. 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주요 대학들에서 입학 지원 예세이에 챗 GPT 등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계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의 창의성 발달에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교육은 단순 지식 습득 이외에도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분석 등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챗 GPT는 완성된 답안을 단순 클릭만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저작권 침해, 부정행위의 위험도 크다.

필자는 챗 GPT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물론 챗 GPT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틀린 정보나, 거짓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꾸며내어 편향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필자가 인공지능 사용을 찬성하는 이유는 단순 '편리해서'가 아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이자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인공지능과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은 4차 산업 혁명의 산물이자, 또 다른 유형의 학습 과정이다. 따라서 인공지능과의 '훈련'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고 기술을 익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챗 GPT 사용을 독려하면서, '챗 GPT 종합안내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외에도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 6월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딥러닝, 클라우드 분야 전문가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도덕적인 고려사항을 학습하며, 새로운 공부법을 도출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4차 산업 기술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인공지능과의 공생, 이제는 새롭게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이달의 책

사람을 마주하는 시선의 변화 - 보랏빛 눈물 박신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인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신병 환자들이 만들어가는 인생이란 영화를 비틀어진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 책은 정신병 환자를 돌보며 변화된 자기 경험을 풀어낸 한 간호사의 이야기다.

저자는 미국의 정신병원 간호사로 발령받아 일한다. 인종과 나이가 모두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입원한 정신병원은 인간 동물원과 같다. 환자들은 아무도 구경하지 않는, 관객 없는 코미디 쇼를 받았...

이 펼친다. 환자들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에게 나쁜 점만을 배우는 게 아닌지 혼란스럽다. 환자들은 인종차별과 성희롱을 하기 일쑤고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도 해 자기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인 곳에서 일하기란 쉽지 않다.

정전기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어느 날, 저자는 한국인 환자를 만나게 된다. 미국이란 타지에서 환자와 간호사로 고국 사람을 만나게 되니 애뜻한 마음이 들어 외지한다. 한국인 환자인 황금순 할머니는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했다가 남편의 외도로 자식들을 홀로 키웠다. 결국 마음의 병이 깊어져 정신병원에 오게 된 사연을 듣자 저자는 환자들이 각자 어떠한 아픔과 상처로 자신만의 세상에 갇히게 된 건지 궁금해졌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 책을 읽다 보니 자연스러운 죽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마주하려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곳에선 환자와 스텝까지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누구나 숨기고 싶어 하는 자신의 약한 점을 솔직히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땐 편견에 갇혀 환자들을 바라보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저자는 진정으로 환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 시작한다. 저자는 정신병원에서 10년 넘게 환자를 간호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한다. 환자를 일로써만 대하지 않고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다 인류학을 공부하게 된 저자가 대단하게 느껴진다. 폭력적인 환자가 저자의 연인을 폭행해 생명의 고비를 넘긴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환자를 원망하지 않고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필자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라,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겉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듯이 보여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정신병 환자를 만나 사람 대 사람으로 보듬어 주는 모습을 보니 편견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던 과거의 나를 반성하게 된다. 정신병 환자들은 스스로 정신병 환자가 될 걸 선택한 것이 아니다. 환자의 주변 환경, 사회, 더 나아가 정치적 상황마저 개인의 정상적 사고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숙한 사람이 되리라 다짐한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130@skuniv.ac.kr)

이달의 전시회

정숙한 영화의 유쾌한 변신 - CAT ART : 고양이 미술사



영화는 정숙하다는 틀을 깨고 그림의 유쾌한 변화를 꾀한 전시가 있다. 바로 'CAT ART : 고양이 미술사'다. 'CAT ART : 고양이 미술사'는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만한 유명한 영화 속 주인공을 고양이로 변화시킨 작품들을 전시했다. 고대 미술부터 르네상스, 동양 미술을 거쳐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미술사를 관통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장 초입에는 화구와 물감을 들고 있는 화가 고양이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작가 본인을 표현한 모습이라고 한다. 일본계 캐나다인 작가 야마모토 슈는 2007년부터 16년 동안 영화 속 주인공을 고양이로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의 작품세계에

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고양이의 문화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CAT ART의 모든 작품은 고양이의 시선으로 담겨 있다. 고양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표현된 것이다! 그에 맞춰 고양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들의 설명은 작품을 보는 데 재미를 더해준다. 일례로 피에트 몬드리안은 그의 아버지와 삼촌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는데, 그의 대표작인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을 오마주한 피에트 '몬' 드리안의 그림을 해석하며 그가 그의 아버지와 삼촌의 고양이 발자국을 따라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이외에도 '빈센트 반 고흐'를 빈센트 '냥' 고흐로, '보타렐라'를 '묘' 티렐리로 바꾸는 등 화가 이름도 변화시킨 것.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각각 '할기'와 '묘체 비례도'로 바꿔 작성하는 등 작품명의 변화를 꾀한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다.

야마모토 슈의 고양이 세계는 고양이들은 매우 독특한 세계와 문화를 구축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들의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이 작품들, 한마디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영화들이 우리 눈에 익숙한 것은 변한 인간들이 고양이 화가들의 작품을 따라 그렸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세계의 고양이들은 지금도 인간이 한눈파는 사이에 인간을 연구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그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논문을 작성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영화의 고양이화 작업은 원작자에게 보내는 오마주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매력을 빌려 오래된 영화를 현대에 다시 소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영화의 변화를 시도한 이유를 밝혔다.

작가는 자칫하면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영화에 관여은 고양이 얼굴을 넣어 영화는 어렵고 심오하다는 틀을 깬다. 반짝거리는 눈으로 캔버스에 그려진 고양이를 보고 싶다면, 고양이화 영화를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른다. 남녀노소 연령 불문 모두 다 영화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전시이니 색다르고 유쾌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학우가 있다면 이곳을 한 번 둘러보길 추천한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409@naver.com)

- 전시기간 : 2023. 07. 06(목) - 10. 29(일)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시간 : 오전 10:00-19:00 (입장마감 : 오후 6시)
- 장 소 : 서울 송파구 잠실로 209 소피텔 엠베서더 3F (MUSEUM 209)
- 가 격 : 성인 15,000원, 청소년·어린이 12,000원

이달의 영화

우리 시기가 변한다 해도 그때 우리 같았으면 해 - 성적표의 김민영 (2022)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삼행시클럽을 만든 김민영, 유정희, 최수산. 영원할 줄 알았던 세 친구의 우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달라진 일상에 관계 또한 달라진다.

라진다. 같은 일상을 나눴던 친구들은 서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서서히 멀어짐을 느낀다. 수산나는 유학을 가고 민영이는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게 된다. '때를 기다리'는 정희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지만 다른 일상을 사는 셋이 시간을 맞추기란 영 쉽지 않다. 갑자기 정희를 자취방에 초대할 민영이는 성적 정정 때문에 여념이 없다. 그럼에도 정희는 묵묵히 민영이를 기다린다.

나는 너에게 몇 정짜리 친구였을까? 영화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의 스무 살과 소중한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정희와 민영이의 고등학교 시절을 엿보면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모습에 심근 미소가 지어진다. 어른들이 보기에 별 해도 좋을 나이 스무 살이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다.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걸까? 이렇게 불안하고 외로운데, 영화는 어릴 때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스무 살에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을 정희와 민영이를 통해 섬세하게 그려낸다.

민영이를 기다리다가 들른 떡볶이집에서 사장님이 "학생이야?"라고 묻자 정희는 "아니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할 만큼 단단하다. 정희의 시선으로 영화가 진행되기에 정희의 입장을 따라가게 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민영이의 입장 역시 이해된다. 민영이의 집을 떠나며 애정 가득한 성적표를 남기고 간 정희, 정희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민영이지 않았을까? 모두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가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 고 말할 수 없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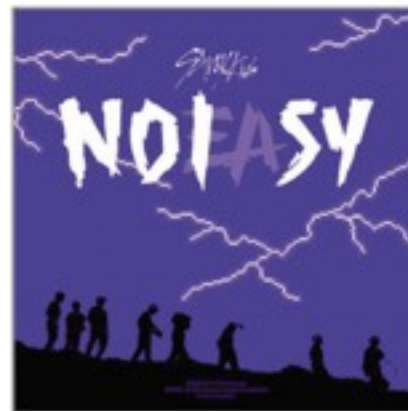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기다림? 그래도 앞으로 뭘 하든 그때 우리 같았으면 좋겠어. 아무도 한심하다고, 덜 절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 마음이, 이 관계가 영원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면 어리석게 영원을 약속한다. 스무 살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진심 어린 소망으로 영원을 바라던 때가 그리워질 때, 영화 '성적표의 김민영'을 권한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

이달의 음악

완전히 달라진 나를 꿈꾸는 당신에게

개감을 맞이하며 대부분 더 나은 나로 성장하기 위한 변화를 꿈꾼다. 그러나 시작조차 못하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대로인 당신의 모습에 실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당신의 멋진 변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골라봤다.



♪ 〈The View〉 - Stray Kids

"내 주위를 맴돌던 고인들은 온데간데없고 새롭게 날 낚는 상상이 넘쳐"

걱정 따윈 없이 나 저기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상쾌한 바람에 내 전부를 맡겨"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싶지만 그 과정이 험하고 결과 또한 불확실함을 알기에 시작조차 망설이게 된다. 변화가 가져올 두려움에 지는 순간 이 노래를 들어보자. 듣는 순간 탁 트인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듯한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걱정 따윈 가볍게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잃어 나지도 않은 일에 관한 걱정은 버리고 원하는 대로 바뀐 나를 상상하며 이겨내길 바란다.



♪ 〈Know Now〉 - NCT U

"자신 있게 외쳐 Cuz you Know Now 자유롭게 꿈꿔 Cuz you Know Now원한다면 미쳐 Cuz you Know Now"

내질러 내 맘대로 hurry 항상 내 편이 돼줄 나를 알잖아 baby"

모두가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나의 변화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총이 무서워서 멈춘다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비난은 그저 새로워진 당신을 향한 그들의 치기 어린 질투일 뿐이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응원하는 사람만을 생각하며 패기 있게 나아가자. 큰 변화가 어렵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 〈Wow Thing〉 - Shy, 신비, 청하, 진소연

"난 지금 막 잠 깨어나 첫 날개를 펼친 Butterfly 오직 나를 위한 무대 밝아지는 조영 아래 Oh 날아오를래"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와 번데기는 화려하지도 아름답지도 않고 그저 혐난하기만 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과정은 못나도 괜찮다. 그 순간만 지나면 고운 나비로 변신할 수 있으니 화려한 날갯짓을 선보이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며 건디자. 나비가 된 후의 애벌레와 번데기는 어떤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을 구실이 되어줄 것이다.

한채린 수습기자 (hanchaerin@skuniv.ac.kr)

이달의 장소

계절의 변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 - 대흥 비로소 커피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자 경의선 숲길을 찾았다. 유창하게 지란 나무 사이를 걷다 보니 붉은빛의 벽돌 건물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곳은 바로 오늘 소개할 장소 비로소 커피다. 경의선 숲길에 위치한 비로소 커피는 2016년 처음 오픈했다. '커피

를 매개체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주인장, 정갈하게 꾸며진 카페 모습에서 그의 바람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다.

카페는 1층과 2층 총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니 경의선 숲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풍광이 방문객을 반겨준다. 풍광 너머에는 울창한 나무가 보였는데, 4계절 모두 다른 모습을 풍기는 나무 덕에 창문 앞 테이블은 늘 문전성시다.

푸르든 나무가 보이는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고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주문을 위해 메뉴판을 살펴보니 디저트와 음료 모두 4000원부터 7000원대에 형성돼 있었다. 커피를 먹지 못하는 이를 위한 논커피(Non-coffee) 메뉴 또한 다양하게 준비돼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계산대 옆쪽으론 원두와 드립백, 다치커피 등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

판매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원두를 시향할 수 있는 시향 공간 또한 마련돼 있으니 마음껏 즐겨보길 바란다.

필자는 커피와 우유를 주문해 맛보았는데 '음료 맛집'이라는 명성답게 좋기는 커피 맛이 만족스러웠다. 카페인 음료 주문 시 원두 또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선택하길 바란다. 맛과 풍경,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모두 만족스러웠던 비로소 커피 대흥. 재하철과도 가까우니 부담 없이 방문하기에 좋다. 이번 주말 이곳을 방문해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문의: 02-712-9030 위치: 서울 마포구 경실로6길 42 영업시간: 10:00-22:00(24시간 라스트 오더 연중무휴)

이달의 스포츠

'금의환향' 한국 배드민턴... 안세영 "그냥 즐기니까 다 잘되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27일 막을 내린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남자 단식을 제외한 전 종목에서 메달을 거머쥐었다. 여자 단식(안세영), 혼합복식(서승재-채유정), 남자복식(김민혁-서승재) 종목에서 금메달을, 여자복식(김소영-공화음)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한편 안세영(21, 삼성생명)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정상에 차지했다. 세계선수권 출전 46년 만에 남녀를 통틀어 한국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에서 정상에 올랐다.

안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드민턴 동호회를 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을 시작했다. 그렇게 배드민턴에 욕심이 생겨 열심히 했더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안 선수는 '배드민턴 천재'로 불리며 세계 단식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로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린 건 1996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 무려 27년 만이다.

배드민턴 여자 세계 1위인 안 선수, 지난 8월 27일, 덴마크 코펜하겐 로열 아레나에

서 열린 2023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카롤리나 마린(6위, 스웨덴)을 2대0(21-12, 21-10)으로 꺾고 우승했다. 안 선수는 상대 선수를 대상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10 연속 득점에 성공한 끝에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배드민턴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안 선수는 인상적인 우승 소감을 밝혔다. "그냥 즐기니까 다 잘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즐겼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우승 소감을

보니 과연 그의 마음가짐이 궁금해졌다. 지난해 그는 "세영아, 다치지 않고 잘 준비해서 네가 목표로 하는 꿈들을 차근차근 이뤄냈으면 좋겠어. 항상 너를 응원할게. 파이팅!"이라는 영상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올해는 "세영아, 언제나 즐기면서 행복한 배드민턴 하자!"고 말해주고 싶다고 인터뷰했다. 자기 말대로 즐기면서 행복하게 배드민턴을 한 덕분일까, 그는 당당하게 세계를 제패했다.

올해 아홉 번째 금메달이자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안 선수, 세계선수권을 마치 고 지난 8월 29일 입국장에서 드러낸 그의

목표는 "그랜드슬램"이다. 그랜드슬램은 세계선수권에 이어 올림픽, 아시안선수권, 아시안게임까지 석권해야 달성할 수 있다.

안 선수를 비롯한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중국 천저우에서 열리는 중국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3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대표팀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노메달'에 그치는 수모를 겪었기에 다가오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수모를 설욕하겠다는 목표를 단졌다. 목표는 단체인 두 종목과 개인전 다섯 종목에서 모두 입상하는 것이

다. 중국오픈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대표팀이 참가하는 마지막 국제대회로, 아시안게임에서 전 종목 입상을 노리는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에게 항저우 인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최종 리허설이 될 전망이다. 금의환향한 한국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의 기세를 이어 배드민턴이 다시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아 한국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